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성요셉 성월)
제27권 17호 (다해) 2007.3.25

[묵상]



글씨

구름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물 위에 어리는 무릇 색깔과 모양

사람의 삶에 얼룩지는 그림자

죄를 물으니 말없이 흙바닥에 쓰신 글씨.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종료) 사순 특강	오후 7:30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십자가의 길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토 요 특전미사	(연)구기순
	(생)김자일 시몬, 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모병익 베드로, 한학남, 김진성 루스비코, 김형진, 이인순 김영수 테레사, 김기하 요셉과 이희자, 김창배 파스칼 정운 요셉, 오준석 요셉 & 김명옥 로즈메리, 이양희 루시아 박원호, 데니스웨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강영철
	(생)오일순 헬레나, 서석희 율리안나, 김은주 엘리사벳 정승원 셀리, 이종민 요셉, 김중선 요한가정 김종렬 아가비도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43,16-21

화답송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전례성가 67 사순 제5주일 C해>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께서 돌려 보내실제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홍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해 주셨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례를 남녘 땅
시냇물처럼 돌려 주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 3,8-14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너그럽고 자비롭도다.◎

복 음 요한 8,1-11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입당	153	151
봉헌	259	254, 255
성체	367	298, 304
과전	157	156

● 성주간 전례와 의미 ●

1. 주님 수난 성지주일

① 성지주일의 의미

성지주일을 시작으로 하여 성주간(聖週間)이 시작된다. 이 주
간은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업을 이룩하신 때요, 교회 전례의
장점을 이루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죽음에 처할 그리스도
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극복될 것을 미리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
회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② 성지주일의 유래

예수께서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세 입성할 때에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데서 유래한다. 이 때 군중
들이 환호한 내용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
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
나!”라고 소리를 쳤다. 군중들이 환호한 것은 예수께서 그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고, 친구 라자로까지 죽음에서 살려내셨다(요
한 11,38-44)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구
원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예수께서 메시아이
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걸음을 벗어 길에 깔
고 손에는 팔마 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여 그리스도를 맞아들
였다.(마태 21,1-11; 마르 11,11; 루카 11,1-10; 요한 12,12-
26 참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그 사건을 기념하
며 전례 안에서 행해져 온 것이 주님 수난 성지주일 전례였다.

③ 성지주일 전례의 변천

400년경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성지주일 전례는 그 전 날 밤
부터 예절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스카 6일 전에 예수께
서 라자로의 집에서 만찬을 가지셨다는 근거(요한 12,1-2)에서
성지주일 전 토요일에는 주교가 베타니아에 가서 저녁 때 만찬
회를 기념하였다. 다음 날인 성지 주일 오후에는 올리브 동산에
세워진 성당에 주교와 모든 신자들이 모여 오랜 동안 기도를 바
쳤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 늦게 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하신 주님의 사적을 복음으로 낭독한 뒤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주교를 중앙에 모시고 시편과 찬미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행렬을 하였다. 이 행렬을 할 때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간
에 모두가 손에 팔마 나무 가지나 올리브 가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는 환성으로 응답을 하
였다. 이 행렬을 부활 기념성당에 이르러 기도하고 끝을 맺었다
고 한다.

④ 성지주일의 전례 구성

성지주일의 전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수난 복음 낭독이다.

(a) 행렬: 성지주일의 입당 행렬은 다른 때 보다 더욱 성대하게
행해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성된
성지를 손에 들고 환호하며 맞는 것이다. 축성된 성지는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십자가에 걸어 놓는다. 이는 구세주로 오신 왕을
환영했던 것을 1년 동안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
재의 수요일 전에 본당에 다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태워 재의
수요일에 사용한다.

(b) 수난 복음 낭독: 성지주일에는 긴 수난 복음이 낭독된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부분까지의 복음을 대체로 사제를 포
함한 세 사람이 입체적으로 낭독하게 된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새로운 출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잡혀온 여인과 돌을 들고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있는 살기등등한 사람들.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판결도 모세가 옛날에 해놓았으니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돌을 던질 것이면서 다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예수님의 판결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형에 동의하시면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에 묻힐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 해도 살아날 가망은 없습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시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님도 그 여인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라고 우선 모세율법의 집행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묘한 대답에 나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싱겁게 물러갔습니다. 살면서 이런 저런 죄를 지어 모세의 율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돌아가고 마침내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돌로 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 하나 남았으니,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돌로 치실 차례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

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소송을 종결지으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확실히 죄인임을 확인하시지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요한 8, 10-11).

사람들은 끝장내기를 좋아합니다. 기회만 허락되면 상대방의 끝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정치상황을 보면 대선 후보 예정자들끼리 벌리는 경쟁에서, 만일 빈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으로 끝장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의 기술경쟁에서도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끝장내기 보다는 늘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사 43,18-19)고 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느님, 아니 그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거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런 은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이웃에게 설파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 이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새로운 출발의 때입니다. 우리네 마음 속에서도 이웃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느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모은기 (다두)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 V.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민상 (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제2독서자	봉효윤 (솔리나)	서용숙 (에스텔)	박진숙 (엘리사벳)
제물봉헌자			토 서 2,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 (매월 첫째 주일)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4240단 ☞ 총 합계: 107,162단

- ◆ 백삼위 본당 자문위원회의
 - 3월26일(월), 오후 7시, 사제관
- ◆ 성삼일 전례 준비회의
 - 3월27일(화), 사순특강 후, 강당
 - 성삼일 전례 봉사자 (별도연락)
-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4월9일(주일), 오후 1시, Room 7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참가비: \$1
 - 신청마감: 3월18일(주일) ● 신청: 한국학교 사무실
- ◆ 한국 성바오로팔수도회 도서선교 안내
 - 3월31일(토)~4월1일(주일)
 - 내용: 신앙서적, 음반, DVD 전시판매
 -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3월 25일: P.V. 3반 (육계장 \$3)
 - 4월 1일: 소공동체 (김밥 \$3)

◆ 사순절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 사순 제5주간 금요일(3월 30일): P.V. 구역
- ※ 기도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사순절 특강

- 3월27일(화): 이 사피엔치아 수녀
- ※ 특강 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사순 판공성사

- 3월28일(수) 오후 7시 참회예절, 7시30분 고해성사
-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판공성사를 받습니다.
- ※ 성 프란치스코 성당/판공성사: 3월30일(금), 오후 8시

◆ 사순절 영상기도 피정

- 4월1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1시~3시, 성전
- 주제: 나의 가정 - 새로 발견하기
- 주관: 한국 성바오로팔수도회

◆ 평일미사 시간 임시변경

- 남가주 본당들의 사순판공으로 평일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 수, 목, 금요일 미사는 모두 오전 8시30분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오늘 주일, 점심식사 후
- 청소구역은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 주관: 시설관리부, 소공동체부, 조경위원회

☉ 환영합니다. ☉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한윤진 율리안나/ 어머니 노순에 미카엘라 (토렌스 남 2)
- 원장희 세례자요한 (청년회)

◆ 혼인공시 ◆

- ◆ 혼배 예정자: George Shin/Wakana Nakamoto
- 일시: 6월2일(토), 오후 3시30분
- 신랑측 부모: 신요셉/신레아
- 신부측 부모: Osamu Nakamoto/Michiko Nakamoto
-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강택희	고천용	권오상	권태만	김광자	김상억	김양금	김수명	김양금
	김수명	김양금	김유숙	김찬구	남명자	문충한	민경근	박선희	박선희
	민경근	박선희	박정자	박희자	송호창	엄세종	오기석	오수인	오수인
	오기석	오수인	유정복	윤재림	이근태	이용식	이일길	이재정	이재정
	이재정	이종한	이현창	임성택	임현기	장수창	장정진	조준제	조준제
	장정진	조준제	조화숙	차봉관	최미열	한창주	허정애	황지영	황지영
	허정애	황지영	김아가비도	익명					
	합계 : \$3,760					합계 : \$3,070			
미사헌금	\$2,559.50	한국성모자/순교자 부조상 전립모금		\$4,966					

남가주 소식

◆ 열린 기도 모임

- 4월1일(주일) 오후 7시~8시30분
- 성서 모임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90621
- 대상: 청년
- 연락처: (714)521-1345

◆ 한국어 혼인 강좌 신청

- 4월14일(토) 오전 8시
- 신청마감: 4월2일(월) ● 수강비: \$50
- 성 제임스 성당, 강당
- 4651 Dunsmore Ave., La Crescenta, CA 91214
- 연락처: (818)248-0496, (818)926-9687

◆ 성녀 예수의 데레사 영성 피정

- 4월14일(토) & 15(주일), 오후1시~8시30분
- 재미 한국 가르멜 수도원
521 N. Euclid St., La Habra, CA 90631
- 주제: '완덕의 길' 해설 총 12강좌 예수의 성녀 데레사
- 강사: 서봉교 에로니모 신부, 가르멜회
(Info 보장할 것)
- 수강비: 일반 \$50, 성직자, 수도자 Free
- 연락처: (323)683-4491, (323)931-6516
- 장소와 식사 관계로 전화 예약 신청만 받음 (저녁식사 제공)

◆ 신약통독 피정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집)

❖ 어르신을 위한 신약 성경 통독 피정

- 4월9일(월) & 12(목)
- 대상: 60세 이상
- 피정비: \$150 (선착순 20명)
- 신청문의: (951)302-3400, 0421
- 준비물: 성경, 성가책,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발

❖ 어르신을 위한 신약 성경 통독 피정

- 4월27일(금) & 29(주일)
- 대상: 일반인
- 피정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0421
- 준비물: 성경, 성가책,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발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상임위원회	본당 청소 후,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만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만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고천용 377-6328 4/4(수) 오후 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07년 사순시기 담화 계속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볼 것이다.” (요한 19,37)

3. “자기들이 찢은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찢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탁월한 계시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에로스와 아가페는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를 밝혀 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피조물에게 사랑을 간청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그분이 “주님이며 하느님” 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랑의 신비의 가장 깊은 표현을 예수님 안에서 알아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 에로스의 계시는 참으로 하느님 아가페가 가장 훌륭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서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결합시키는 사랑만이 기쁨을 줄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짐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3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응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일치하시고자 “나를 당신에게 이끌어 들이시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 피와 물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볼 것이다.” 창에 찢려 “피와 물” (요한 19,34)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교회의 교부들은 이 두 요소를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에서 물을 통하여 성령의 활동으로 삼위일체의 내밀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 여정 동안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비로운 품을 향해 우리를 열어 그분을 믿고 내어 팔기도록 권고 받습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리서」(Catecheses), 3, 14 이하 참조]. 착한 목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피는 특히 성찬 신비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 우리는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역동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3항). 그러니 우리는 사순시기를 ‘성찬’의 시간으로 살도록 합시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주변에 퍼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찢은 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인간 존엄이 입은 상처들을 알아보도록 이끌립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 경시와 인간 착취에 맞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절망이라는 비극을 덜어주도록 이끌립니다. 사순시기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날마다 이웃에게, 특히 가장 고통 받고 가난한 이웃에게 ‘다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 여정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풍요로운 사순 여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한분 한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사도로서 특별한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 바티칸에서 / 2006년 11월 21일 / 교황 베네딕토 16세